

문화



98문화계 결산

제1회 작은평화
가족사랑노래
시상식 및 발표회

눈시울 붉어진 나눔의 자리

<이희호의 내일을 위한 기도> 출판기념회



▲ 이희호 여사의 인사말이 끝난 후 시루떡으로 대신한 케익 커팅 순서가 마련됐다. (맨 왼쪽부터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 조세형 국민의회의 총재권한 대행,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총재, 이희호 여사, 이계경 여성신문 사장, 강원용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 이희호 여사는 이웃들이 절망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주고자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출판 의도를 전했다. (사진·민원기 기자)



다(무순), 강원용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윤후정 여성특위위원장, 박지원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 한승헌 감사원장, 천용택 국방부 장관,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 고건 서울 시장,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이강래 청와대 정부수석, 소설가 박완서, 조세형 국민의회의 총재권한대행, 김근태 국민의회의 부총재, 연극인 윤석화, 장영신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영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홍라희 호암미술관장, 홍석규 (주)보광 대표이사, 김희선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장, 박삼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부인의 편지 모음집 <이희호의 "내일을 위한 기도">(여성신문사, 9천5백원) 출판 기념회가 열린 63빌딩 국제회의장은 각계각층에서 찾아온 1천여 명의 인사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연극인 손숙 씨와 김승현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가 함께하여 "이 여사의 깊은 사랑과 인내가 김대중 대통령이 시련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책을 읽는 내내 그 사랑에 감동받아 눈시울을 적셨다"는 독후 소감을 전했다.

이에 이희호 여사는 "이 자리가 단순한 출판기념회가 아닌 '나눔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계속해서 이 여사는 "어려

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 안된다"며 자신의 책이 "자그마한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가 이 책을 쓰던 때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않고 견뎌냈습니다. 그 힘은 믿음과 사랑이었고, 이웃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였고,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힘이었고, 그 힘이 불의를 이겨냈습니다. 지난 핍박의 시대는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단련시켰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손길을 이끌어내 전달하는 교량의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이 절망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을 내는 보람입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같은 뜻을 전하는 동안 이 여사는 눈시울을 붉혀보는 이를 숙연케하며 출판기념회의 의의를 마음 깊이 새기게 했다.

한편 사회자 손숙 씨는 현재 <내일을 위한 기도>영문판이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 등 각지에서 출판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머지않아 이 책이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조짐이 보인다고 전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이날 모인 수익금과 인세는 전액 사랑의 친구들을 통해 '사랑의 떡국 나누기'에 쓰인다.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

구 (주)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박동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변주선 세계결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 박청수 강남교당 교무, 원철희 농협 회장, 윤경은 서울여대 총장, 이길여 가천의대부속 길병원 이사장, 이영자 (주)새한 회장, 이인희 한솔 고문, 조선형 한국결스카우트연맹 총재, 조아라 전 광주YWCA회장, 유정자 행남 자기 대표이사,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신영균, 국회의원 이진개, 국회의원 박청수,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장영식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세영 SBS 회장, 이경배 한국마사회 부회장, 이영순 서울시의원,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박양덕 이영희 연합회 고문 등이다. (최이 부자 기자)